

이번엔 대표 구속...벼랑 끝 '메타프로방스'

금품 주고 사업비 부당 대출...광주지검, 3명 구속

사업승인 무효 이어 최초 위기...담양군 상고 결과 관심

메타세쿼이아 숲 속의 유럽풍 마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법원이 '사업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한데 이어 사업을 주도했던 업체 실질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수재)로 사업을 주도한 실질대표 A씨와 금융기관 직원 B씨, 브로커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 전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추진하면서 C씨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 B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일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거래를 대가로 이뤄진 부당대출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수재)로 사업을 주도한 실질대표 A씨와 금융기관 직원 B씨, 브로커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메타프로방스

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이 회사는 사유지 전체면적의 약 59%만 확보하는데 그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유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이뤄진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정신청서에 이 같은 사실이 기재돼 있어 쉽게 알 수 있는 담양군이 이를 유효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하자로 인정된다"며 "이를 토대로 인가처분한 것 또한 중대·명백한 하자여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담양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최정석 담양군수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각에 따라 법리 해석

이 다를 수 있다 해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중단시킬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적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 일대 13만4000㎡ 부지에 민자 587억원을 들여 상가 59동, 펜션 34동, 식당 9동, 호텔 2동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3월 사업승인이 났고, 이듬해 일부 상가와 펜션을 개장해 영업에 들어갔다. 메타세쿼이아길과 어우러진 유럽풍 마을의 풍경이 알려지면서 전국 명소로 떠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흰 진달래 본 적 있나요"



장성 입암산서 희귀종 발견

내장산국립공원 입암산(장성) 자락에서 희귀식물인 '흰진달래'가 발견됐다.

흰진달래는 진달래의 한 품종(변이종)으로 분홍빛을 띠는 일반 진달래와 달리 흰색 꽃을 피운다. 과거 드물게 산야에서 자생했으나 서식환경의 변화와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 좁혀진 보기 드문 식물이 됐다.

최근 장성에서 발견된 흰진달래는 분홍빛 꽃을 피우는 진달래 10여그루 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나무의 높이는 2.5m에 이른다.

생태사건전문가 박성배(59)씨는 "분홍빛 진달래 무리에 섞여 홀로 흰 꽃을 피우고 있어 한눈에 흰진달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매우 희귀한 식물인 만큼 훼손되지 않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 박성배씨 제공)



"음악은 삶의 비티민" 12일 광주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나기 학교'에 참가한 중급반 수강생들이 강사와 함께 오카리나 연주를 하고 있다.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소품 만들기 등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광주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나기 학교'에 참가한 중급반 수강생들이 강사와 함께 오카리나 연주를 하고 있다.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소품 만들기 등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육청, 유치원 누리예산 우회 지원하나

시의회에 추경안 편성 대신 예산 전용 의견 전달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임시회 때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대신, 시교육청은 다른 예산 일부를 돌려 쓰겠다는 '전용(轉用) 의견'을 전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예산안만 편성할 경우 시의회 처리가 쉽지 않는데, 어린이집 축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식적 절차 대신, 우회 지원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광주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뿐만 편성해 제출할 경우 발생할 시의회와 어린이집 축 반발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총선 이후 내놓을 누리과정 대책을 지켜 보며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이 여태껏 60억원 상당의 4월 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못한 상태인데, 다음 회기 일정(6월 1~13일)을

감안하면 유치원 운영비·교사 임금 제비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유치원에 지원할 다른 몫의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이 대한 시의회측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심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와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임시회 때 3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176억 3900만원 상당)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지역 유치원들에게 배정할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3 | 해질 19:04 | 달뜨기 10:56 | 달지기 00:18

마스크 행기세요
오후부터 곳곳에서 열린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14/20	보성	흐리고비	12/19
목포	비온뒤	14/19	순천	흐리고비	13/19
여수	흐리고비	14/17	영광	비온뒤	15/19
나주	비온뒤	14/20	진도	비온뒤	14/20
완도	흐리고비	14/19	전주	비온뒤	14/18
구례	흐리고비	13/20	군산	비온뒤	13/18
강진	흐리고비	14/19	남원	흐리고비	14/18
해남	비온뒤	14/19	홍산도	비온뒤	12/15
장성	비온뒤	14/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남동~남	0.5~1.5	북~북동	0.5~1.5
남부	남해	남동~남	1.5~2.5	북~북동	1.0~2.0
남해	남해	남동~남	1.0~2.0	북~북동	1.0~2.0
서부	남해	남동~남	1.5~3.0	북~북동	1.5~3.0
남해	남해	남동~남	1.5~3.0	북~북동	1.5~3.0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13/24	9/24	12/20	12/19	10/21	10/21	11/20

"총선 현수막, 밧줄로 재탄생 합니다"

광주 사회적기업 '현장사람들' 현수막 기부 독려

"총선 끝났다고 홍보 현수막 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기시면 밧줄로, 시장바구니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회적 기업인 '현장사람들'이 4·13 총선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홍보 현수막 기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버려지는 현수막이 소각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하는 것을 막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장사람들의 주력 생산품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생산한 어업, 산업용 밧줄이다. 밧줄 생산 공정은 폐현수막에서 나무와 천을 분리한 뒤 천을 새끼줄처럼 꼬아 제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폐현수막 일부는 주민들이 쓰는 시장바구니를 만드는데 쓰이기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꾸러기는 이 기업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과 함께 나무 재활용 사업, 주택리모델링 사업도 벌이고 있다.

현장사람들 관계자는 "유독 경쟁이 치열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버려지는 현수막이 쏟아질 것 같다"면서 "현수막이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062-525-0056. /김형호기자 khh@

전남서 올 첫 일본 뇌염모기 출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들어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현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을 위해 실시하는 모기 밀도 조사는 전남 5개 지역에서 4월부터 매주 2회 모기를 채집해 이

뤄진다. 지난해에는 4월5일 일본뇌염모기 기가 처음 출현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최소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본 뇌염매개모기와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흰줄숲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현식기자 chadol@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제주 바다 앞 프리미엄 수익형 호텔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과 옥상 비비큐장, 야외테라스, 옥상정원 등 수준높은 부대시설 고품격 설계로 눈부신 미래가치가 펼쳐집니다

- 연 12% 10년 확정수익보장 (실부자금 대비 +AT 재비/5% 대출조건)
- 계약시부터 계약금 x 연 5% 수익지급
- 연 10일 무료숙박 (상반기 2일/하반기 8일)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제주현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9번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 올레 19번길)
모델하우스 서구 농성동 481-29번지 (상록회관-리베스타워딩을 옆)

문의 1600-2949

새 주인을 찾습니다

팬션 매매

아름다운 팬션 크리에이티브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 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